

기도문 비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

—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 증 환**

目 次

1. 연구목적
 2. 비교자료 선정 및 분석
 - 2.1 비교자료선정
 - 2.2 자료분석
 - 2.2.1 어휘량 비교
 - 2.2.2 문 단위의 대조분석
 3. 검증 및 향후 과제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에서 똑같이 음송되고 있는 두 개의 기도문인 주기도문(主の祈り)과 사도신경(使徒信條)의 문장을 비교함으로써 문장 단위에서의 한국어문과 일본어문의 상대적인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대한 동기는 이들 기도문이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는 한국어 기도문과 일본어 기도문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비교수치는 뒤에서 제시되겠지만, 일본어문의 경우는 한국어문에 비해 두 기도문 모두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가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원인을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러한 원인이 되는 요소가 발견되면 그 존재가 두 언어의 구조에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예견하고 차후의 연구과제로 연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먼저 이들 기도문이 한일 대조연구에 미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기로 하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어 기도문만이 아니라 일본어 기도문도 헬라어나 영어 등 제3의 언어로부터 번역된 번역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성경번역이나 기독교 전래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기도문 번역에서 일본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일본어 번역문을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¹⁾, 문장 단위에서 두 언어의 상대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나채운(1988), p.128

한편, 이 기도문 대조는 문장 단위의 대조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의의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종래의 형태나 통사범주 영역에서 축적되었던 연구업적들이 문장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증되면서 문법연구의 범위를 문장단위까지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기도문의 비교분석 결과가 한일 두 언어의 일반 문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두 언어의 문장 단위에서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연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기도문을 선정한 후, 선정된 기도문에 대해 어휘량과 문의 구조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문장구성시에 두 언어가 문의 수를 달리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낸다. 여기에서 비교대상이 될 기도문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들 기도문에 대한 개역과정이 수차례 걸쳐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의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이들 기도문과 문체가 유사한 성경의 비교를 통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결과와 관련해, 두 언어의 문법구조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언어현상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찾기로 한다.

2. 비교자료 선정 및 분석

2.1 비교 자료 선정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과 일본 모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한 개역과정이 수차례 걸쳐 있었던 바, 본고에서는 비교대상자료로 현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을 선정했다. 이들 기도문의 개역년도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²⁾, 일본어문이 1880년 개역판이고 한국어문은 1937년 개역판이어서 6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이들 기도문이 두 나라의 교회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는 앞의 지적 외에도, 문장체로서 문체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비교대상 자료로서 각각에 대한 한국어와 일본어 기도문을 제시하면서, 참고자료로서 영어 기도문도 제시하기로 한다. 제시되는 영어 기도문 역시 문어체라는 문체상의 특징 외에 현재 미국에서 많이 음송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연구동기가 각각의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가 다르다는 데에 있었으므로, 각각의 기도문을 제시하면서 문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놓기로 한다.

<자료> 주기도문

①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②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③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④아멘./

2) 나채운(1988), p.128, p.145

①天に/まします/我らの/父よ、/ねがわくは/御名を/あがめさせたまえ。/②御國を/きたらせたまえ。/③みこころ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

④我らの/日用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⑤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ゆるしたまえ。/⑥我らを/こころみに/あわせず、/惡より/救いいただいたまえ。/⑦國と/力と/榮えとは/限りなく/なんじの/者なればなり。/⑧アーメン。/

①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②Thy Kingdom come. ③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④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⑤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⑥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⑦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⑧Amen.

<자료2> 사도신경

①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②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③아멘./

①我は/天地の/造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②我は/その/獨り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③主は/聖靈に/よりて/やどり、/處女/マリヤ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陰府に/くだ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へ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へり、/かしこより/來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はん。/④我は/聖靈を/信ず、/聖なる/公同の/教會、/聖徒の/交わり、/罪の/赦し、/身体の/よみがへり、/永遠の/命を/信ず。/⑤アーメン。/

①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②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③Amen.

먼저 위의 기도문 각각이 영어문을 포함해서 언어별로 몇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언어별 문의 수³⁾

3) 괄호 안의 수치는 '아멘'을 제외시킨 것

	한국어	일본어	영어
주기도문(主の祈り)	4(3)	8(7)	8(7)
사도신경(使徒信條)	3(2)	5(4)	3(2)

각각의 기도문에 대한 일련번호나 위의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기도문과 일본어 기도문 사이에는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주기도문의 경우, 한국어문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어문은 한국어의 두 배에 상당하는 8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독립어인 ‘아멘’도 하나의 문으로 인정한 수치이다. 만일에 이 독립어를 문의 수에서 제외시킨다면, 한국어문과 일본어문은 각각 3:7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이것은 기도문 사도신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어는 5개의 문으로 주기도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구성시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더 많은 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참고로 제시한 영어문의 경우, 주기도문은 8개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어문과 같은 반면에 사도신경의 경우는 3개의 문으로 한국어문과 같다. 영어문에 나타난 이러한 수치는, 한국어 기도문과 일본어 기도문 사이에서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가 다른 이유가 번역경로 등 제3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무언가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2.2에서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기도문 각각에 대한 어휘량 비교 및 문 단위의 대조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2.2 자료분석

2.2.1 어휘량 비교

여기에서 어휘량 비교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명제를 문장으로 나타낼 때, 어휘적 측면에서 두 언어가 어떤 상이점을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어휘량 비교는 몇 가지 어휘군의 어휘분포를 보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총어휘와 표제어, 어절, 자립어, 부속어 등 다섯 가지에 걸쳐 실시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각 기도문을 어절 단위로 나누어, 기도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절 수를 조사한다. 어절은 문의 최소성분으로서 한국어의 경우는 띄어쓰기 단위를, 일본어의 경우는 하시모토(橋本)문법의 문절 단위를 기준으로 했다⁴⁾. 이미 밝힌 대로 2.1의 두 기도문에서는 ‘/」단위를 각각의 어절로 했고, 본고에서는 쉼표나 마침표 등 기호는 독립된 어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각각의 어절을 자립어와 부속어로 나눔으로써 기도문별로 총어휘수를 조사하고, 중복되는 것을 여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기도문에 쓰인 표제어의 수를 조사한다. 한편, 표제어인 자립어와 부속어에 대해서는 품사비교를 위해 각각의 품사명을 명기하되, 표기는 다음과 같이 명칭과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본고에만 제한된 객관적 비교자료를 마련한다. 즉, 자립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로 용어와 범위를 통일한다. 부속어의 경우,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및 접사를, 일본어는 조사와 조동사 및 접사를 구분하되 각각에 대한 하위분류는 생략한다.

셋째, 위의 조사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자료를 만들고 <표>에 나타난 수치를 근거로 어휘비교를 실시한다.

4) ‘예수 그리스도’, ‘イエス・キリスト’, ‘본디오 빌라도’ 등은 고유명사 취급을 해서 한 어절로 본다.

이상의 기준에 근거해 어휘군 각각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자립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어절은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2.1의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주기도문에서는 한국어가 46개이고 일본어가 43개였으며, 사도신경에서는 한국어가 69개이고 일본어 66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는 언어별로 각각의 기도문에 나타난 총어휘와 표제어, 그리고 자립어와 부속어의 수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앞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 분석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를 설명하면 이렇다. 즉 각각의 기도문에 나오는 표제어를 자립어와 부속어로 나누었고 각 항에서 동일한 품사끼리 구분지어 묶은 후에 그 품사명을 괄호 안에 명기했다. 그리고 각각의 표제어 옆에 붙은 수치는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어휘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어 주기도문의 어휘)

<자립어>

하늘₂, 우리₆, 아버지₂, 이름₁, 나라₂, 뜻₁, 것₂, 땅₁, 오늘날₁, 양식₁, 죄₂, 재₁, 시험₁, 악₁, 권세₁, 영광₁(이상은 명사; 16개)/ 계시다₁, 여기다₁, 받다₁, 임하다₁, 이루다₁, 이루어지다₁, 일용하다₁, 주다₃, 짓다₁, 사하다₂, 들다₁, 하다₁, 구하다₁, 말다₁(이상은 동사; 14개)/ 있다₁(이상은 형용사; 1개)/ 거룩히₁, 같이₁, 다만₁, 대개₁, 영원히₁(이상은 부사; 5개)/ 아멘(감탄사; 1개) : 37/50(표제어/총어휘수, 이하 동일)

<부속어>

예₂, 여₁, 이₄, 을₂, 에서₃, 에게₂, 를₃, 게₁, 가₁, 와₂, 도₁(이상은 조사; 11개)/ -₃, -리, -은₁, -고₁, -며₂, -어₁, -고₃, -여₂, -게₁, -지₁, -으시-₁, -오-₁, -옵-₅, -시-₄, -사옵-₁, -이다₁, -소서₁, -나이다₁(이상은 어미; 18개) : 29/53

(일본어 주기도문의 어휘)

<자립어>

天₂, 我ら₆, 父₁, 名₁, 國₂, ところ₁, 地₁, 日用₁, 糧₁, 今日₁, 罪₂, 者₁, ところみ₁, 惡₁, ちから₁, 榮え₁, なんじ₁, 物₁(이상은 명사; 18개)/ まします₁, あがめる₁, きたる₁, なる₁, なむ₁, 与える₁, おかす₁, ゆるす₂, 會₁, 救い出す₁(이상은 동사; 10개)/ ねがわくは₁, かぎりなく₁(이상은 부사; 2개)/ アーメン(감탄사; 1개) : 31/40

<부속어>

に₅, を₇, が₁, より₁, の₆, よ₁, と₃, は₁, は₁, も₃(이상은 조사; 10개)/ させる₁, たま₆, せる₃, ごとし₂, ず₁, なり₂(이상은 조동사; 6개)/ 御(접사 1개) : 17/46

(한국어 사도신경의 어휘)

<자립어>

천지₁, 하나님₂, 아버지₁, 내₁, 외아들₁, 우리₁, 주₁, 예수 그리스도₁, 이₁, 성령₂, 동정녀₁, 마리아₁, 본디오 빌라도₁, 고난₁, 십자가₁, 재₁, 사흘₁, 만₁, 재₃, 가운데₁, 하늘₁, 우편₁, 저레₁, 공회₁, 성묘₁, 죄₁, 짓₄, 몸₁(이상은 명사; 28개)/ 만들다₁, 믿다₄, 잉태하다₁, 나다₁, 받다₁, 못박다₁, 죽다₃, 장사하다₁, 살아나다₁, 오르다₁, 앓다₁, 계시다₁, 살다₃, 심판하다₁, 오다₁, 교통하다₁, 사하다₁, 주다₁(이상은 동사; 18개)/ 전능하다₂, 거룩하다₁(이상은 형용사; 2개)/ 다시₂, 서로₁, 영원히₁(이상은 부사; 3개)/ 그(관형사 1개)/ 아멘(감탄사; 1개) : 53/68

<부속어>

를₅, 가₂, 으₁, 에게₂, 을₃, 예₄, 서₁, 이₂, 로서₁, 는₁, 와₂, 께₃(이상은 조사; 12개)/ -₅, -은₂, -₁

-사3, -며3, -니1, -고2, -에1, -다거1, -러1, -예1, -어1, -으사1, -사-6, -사오-3, -으사-1, -사옵-1, -리러1, -나이다1(이상은 어미; 19개)/ -히1(접사; 1개) : 32/67

(일본어 사도신경의 어휘)

<자립어>

我3, 天地1, 造り主1, 全能2, 父2, 神2, 獨り子1, 我ら1, 主2, イエス・キリスト1, 聖靈, おとめ, マリア1, ポンテオ・ピラト1, もと1, 苦しみ1, 十字架1, 陰府1, 三日1, 死人1, 内1, 天1, 右1, かしこ1, 者2, 公同1, 教會1, 聖徒1, 交わり1, 罪, ゆるし1, からた1, よみがえり1, とくしえ1, 命1(이상은 명사; 35개)/ 信ず4, よる1, やどる1, 生まれる1, 受ける1, つける1, 死ぬ1, 葬る1, くだる1, よみがえる1, のぼる1, 座す1, きたる1, 生く1, 審く1(이상은 동사; 15개)/ その1, 聖なる(관형사; 2개)/ アーメン1(감탄사; 1개) : 53/65

<부속어>

の12, を6, に7, より3, は4, と2, て3, (이상은 조사; 7개)/ なり3, られる1, れる1, たまう2, り3, ん1(이상은 조동사; 6개)/ - 田(접사; 1개) : 14/49

다음의 <표2>는 이들 어휘군을 기도문별로 정리한 어휘량 비교표이다.

<표2> 어휘량 비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총어휘	103	86	총어휘	136	114
표제어	66	48	표제어	85	67
어 절	50	40	어 절	69	65
자립어	37	31	자립어	53	53
부속어	29	17	부속어	32	14

<표2>의 한국어 기도문 어휘군과 일본어 기도문 어휘군 사이의 어휘량 비교에서 무엇보다 쉽게 확인되는 것은 사도신경의 자립어를 제외한 모든 어휘군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는 점이다. 각각의 어휘군에 대한 <표2>의 결과는 곧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어와는 달리 부속어는 두 기도문 모두 한국어가 월등히 많다.

둘째, 자립어 하나를 필수로 요구하는 어절에서도 두 기도문 모두 한국어가 많다.

셋째, 자립어와 부속어 중 신출어휘만 합산한 표제어에서도 한국어가 월등히 많다.

넷째, 중복출현하는 자립어와 부속어를 총망라한 총어휘의 경우도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많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본고에서 의도하는 바 한국어 기도문과 일본어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가 다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음 작업으로 각각의 기도문에 있어서의 자립어와 부속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이것은 자립어와 부속어가 모든 어휘군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립어의 경우로, 주기도문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각각 37:31로 문장의 길이에 비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사도신경은 53:53으로 동일수치를 나타내는 등, 두 기도문 사이에 동일한 차이점이 찾아지기 않기 때문에, 어휘량 수치에 근거한 의미부여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자립어가 많이 쓰이는가 하는 품사상의 문제와, 사도신경의 경우 자

립어의 수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자립어와 직접 관계된 어절에서는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은 나름대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다. 이에 우선 두 기도문의 자립어에 대한 언어별 품사분류를 실시했고, 다음의 <표3>이 그 결과이다.

<표3> 자립어의 품사비교

(주기도문)						(사도신경)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한국어	16	13	2	5	1	한국어	28	18	2	1	3	1
일본어	18	10	0	2	1	일본어	35	15	0	2	0	1

<표3>의 품사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기도문 모두 근소한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문 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많고, 일본어문에는 명사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개의 짧은 기도문 비교라는 제한된 자료의 분석결과이지만, 문장 구성시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동사의 사용비율 이 높고 일본어는 명사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 문의 내부구조와는 관계되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문의 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

한편 자립어가 동수인 사도신경까지도 어절의 수에서는 한국어문이 일본어문보다 더 많은 것은 자립어의 중복출현이 한국어문에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자립어의 중복출현이 많다는 점과 또 그로 인해 어절의 수가 많다는 것도 두 언어의 기도문 비교에서 나타난 명백한 차 이점이 된다.

다음은 부속어 비교이다. <표2>에서 부속어는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월등히 많음이 두 기도문 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어의 경우 일본어와는 달리 ‘가/이, 을/를, 과/와 등 의 조사나, ‘-ㄴ/-은, -아/-어, -시-/으시-, -사오-/사옵-, -사/으사’ 등의 어미에서 음운론적 제 한을 받는 동의어어미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속어의 하위분류를 보여주는 <표4>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일본어의 조동사에 비해 어미의 종류가 많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어 어미와 일본어 조동사를 완벽하게 동일한 통사적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러나, 본고처럼 부속어를 한일 두 언어에서 각각 조사·어미·접사와 조사·조동사·접사로 분류했 을 때, 공통된 문법성을 갖는 조사와 접사를 제외하면 결국 한국어 어미와 일본어 조동사는 기능상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부속어임에는 틀림없다.

<표4> 부속어의 품사비교

(주기도문)					(사도신경)				
	조사	어미	조동사	접사		조사	어미	조동사	접사
한국어	11	18	0	1	한국어	12	19	0	1
일본어	10	0	6	1	일본어	7	0	6	1

이렇게 해서 두 기도문의 어휘량을 비교했을 때, 모든 어휘군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양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그 배경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즉 동일 내용의 문장 구성시 자립어에서 많이 쓰이는 품사가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한국어는 자립어의 중복출현 회수가 상대적으로 일본어 에 비해 많아서 어절이 많다는 것 등은 문의 구조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부 속어에서는 한국어의 어미가 거의 유사한 통사성을 갖는 일본어 조동사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도

어휘량 비교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어휘량의 차이가 문장 단위에서 문의 수를 달리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2.2.2에서는 한국어 기도문과 일본어 기도문을 각각 문 단위에서 비교함으로써 그 배경에 접근하기로 한다.

2.2.2 문 단위의 대조분석

여기에서 말하는 문 단위의 대조분석이란 기도문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른 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일본어 쪽이 한국어 보다 동일한 기도문에서 더 많은 문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일본어문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문으로 실현되는가를 조사했다. 다음의 <표5>가 그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이 분석자료를 보면, 몇 군데에서 일본어문의 명령형태나 서술형태의 종결형이 한국어문에서는 연결어미라는 접속형으로 나타나면서 문이 길게 늘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문 단위 대조
(주기도문)

일본어	한국어
① ---- 御名をあがめさせたまえ。(종결형)	① -----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접속형)
② ---- 來たらせたまえ。(종결형)	----- 입회옵시며 (접속형)
③ ---- 地にもなさせたまえ。	-----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④ ---- 今日も与えたまえ。(종결형)	② ----- 양식을 주옵시고(접속형)
⑤ ---- 我らの罪をもゆるしたまえ。(종결형)	----- 사하여 주옵시고(접속형)
⑥ ---- 惡より救いいだしたまえ。	-----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⑦ ---- 限りなくなんじのものなればなり。	③ ----- 영원히 있옵나이다
⑧ アーメン	④ 아멘

(일련번호는 2.1의 비교자료 참고 이하 사도신경도 동일)

(사도신경)

일본어	한국어
① ---- 神を信ず。(종결형)	① ----- 내가 믿사오며(접속형)
② ----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종결형)	-----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접속형)
③ ---- と死ぬ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 심판하러 오시리라.
④ ---- 永遠の命を信ず。	② -----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 이다.
⑤ アーメン	③ 아멘

즉 일본어 주기도문 중 ①②와 ④⑤의 문은 조동사 「-たまう」의 명령형 「-たまえ」로 종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어에서는 「-며」나 「-고」라는 연결어미로 실현되면서 하나의 문으로 길게 늘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 사도신경의 문 ①②에 나타난 동사의 서술형 종결형태도 한국어문에서는 「-며」나 「-니」라는 연결어미로 실현되면서 길게 늘려진 하나의 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기도문 비교에서 확인된 대로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구성하면서 두 언어 사이에 문의 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어의 연결어미나 일본어의 접속조사와 같은 접속형태의 발달

차이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가 접속형태의 발달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고의 비교대상인 기도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국어 두 개의 기도문에서는 ‘-며, -어, -고, -여, -게, -지, -사, -니, -다가, -러, -아, -오사’ 등 12개가 연결어미로 사전에서 분류되나, 일본어 두 기도문에서 접속형태의 기능을 갖는 것은 접속조사 ‘て’와 일본어 활용형 중 연용형밖에 없다. 접속형태에서의 이러한 발달 차이가 두 언어의 구조비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일본어 기도문 사도신경에 나타난 접속형태를 한국어와 대조시켜 봄으로써 확인하기로 한다. 일본어 사도신경에서 동사와 동사의 접속이 아니라 문과 문의 접속과정에 나타난 접속형태는 「かしこより來たりて」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용형 접속이고, 그 중에서 다시 한국어 연결어미와 자연스러운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의 여섯 개가 있다.

(일본어)	(한국어)
主は聖靈によりて <u>やどり</u> ,	이는 성령으로 <u>인태하사</u>
處女マリアより <u>生まれ</u> ,	동정녀 마리아에게 <u>나시고</u>
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 <u>苦しみを受け</u> ,	본디오 빌라도에게 <u>고난을 받으사</u>
死人のうちより <u>よみがへり</u> ,	죽은 자 가운데서 <u>살어나시며</u>
天に <u>昇り</u> ,	하늘에 <u>오르사</u>
神の右に <u>座したまへり</u> ,	하나님 우편에 <u>앉아 계시다가</u>

이것은 짧은 기도문 대조인데도, 일본어 접속형태인 연용형 하나가 한국어에서는 ‘-사, -고, -며, -다가’ 등 통사적 의미가 다른 네 개의 연결어미와 대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어의 대표적 접속형태인 연용형은,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다의성을 가진 문법형태로, 일본어 접속형태가 의미상으로 미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명제를 나타내는 문장단위에서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수적으로 더 많은 문을 갖게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미상 미분화된 접속형태 하나가 문 하나에 자주 출현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의미상의 부담 때문이다.

다만, 다음에 제시하는 일본어 사도신경의 일부는 한국어의 다양한 연결어미에 대응되고 있는 일본어의 연용형 접속형태가 하나의 문 안에 무려 9개나 나열되면서 긴 문을 형성하고 있어, 필자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主は聖靈によりてやどり、處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陰府にくだ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へ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へり、かしこより來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はん。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위의 대조 부분에서도 일본어 기도문의 연용형 접속형태 하나가 한국어에서는 ‘-사, -고, -며, -다가’ 등 통사성이 다른 네 개의 연결어미와 대응되고 있어, 앞에서 세운 가설에 문제가 될 만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일한 주어의 순차적인 사건이라는 아주 단순한 병렬을 나타냄으로써 구체적인 통사성이 배제된 것으로 예외적 취급이 가능하다. 이것은 여기에 나온 한국어 네 개의 연결어미가 구체적인 통사성을 달리 한다고 해도 순접접속이라는 통사성은 기본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문에 「て」와 연용형이 다수 출현하는 장문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장문의 출현비율이 한국어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검증 및 향후과제

2장의 기도문 분석에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검증을 요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즉, 문장단위에서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문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성을 띠는가, 동일 내용의 문장 구성시 어휘량은 한국어가 항상 일본어보다 많은가, 동일조건 하에서 자립어의 경우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동사의 사용비율이 높고 일본어는 명사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가, 접속형태의 발달정도와 문장 구성시 문의 수는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는가 등등이다.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검증은 많은 시간과 지면을 요하는 바, 본고에서는 우선 기도문과 유사한 문체를 지닌 자료를 근거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증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본고에서 실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검증사항은 동일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 단위에서 일본어 문의 수가 한국어문보다 많다는 것은 일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검증되면 나머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검증을 위해 한국어 성경 1956년판(대한성서공회)과 일본어 성경 1955년판(日本聖書協會)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이들 성경의 문체가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기도문들과 유사해서 문장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검증방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의 구약성경 앞부분 다섯 권과 신약성경 앞부분 다섯 권을 선정한 후, 각권의 1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즉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각 1장,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각 1장이고, 다음의 <표6>이 조사결과이다.

<표6>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서의 문의 수 대조

	창	출	레	민	신	마	막	누	요	행
한국어	26	10	6	17	10	9	26	27	43	11
일본어	48	21	23	21	31	15	45	43	64	15

위의 <표6>은 기도문 비교에서 나타났던 결과가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차이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즉 동일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열 권 모두에서 일본어문이 한국어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두 언어의 구조에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접속형태의 발달 차이에 있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다. 즉 한국어는 접속형태가 분화되어서 문을 길게 늘려도 부담이 없지만 접속형태가 발달하지 못한 일본어는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에 이런 추론이 타당하다면, 두 언어 사이에는 접속사의 분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에 의해 중문이 되는 경우가, 일본어에서는 문이 분리되면서 접속사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본고의 검증자료로 쓴 성경 열 권의 각 1 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가 다음의 <표7>이다.

<표7>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서의 접속사의 수(괄호 안은 총출현회수)⁵⁾

	창	출	레	민	신		마	막	눅	요	행
한국어	0	2(3)	1(2)	1(1)	2(2)		1(1)	2(2)	2(2)	0(0)	1(1)
일본어	0	6(10)	3(6)	4(5)	5(7)		3(4)	8(22)	9(21)	7(17)	4(6)

<표7>은 접속사가 발견되지 않은 창세기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일본어문이 한국어문에 비해 접속사 사용이 많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표7>의 괄호 안에 나타난 접속사 총출현회수는 일본어문이 접속사 의존도가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여기에는 ‘또(また)’나 ‘즉(すなわち)’과 같은 접속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에 여기에 이들 접속부사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차이는 훨씬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일 내용의 문장 구성시 한국어문과 일본어문 사이에 문의 수가 다른 이유로 접속형태의 발달 차이를 지적한 본고의 가설은 타당했다고 본다. 이것은 접속사의 분화정도와 사용회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입증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성경의 개역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바 현대어 구어체로 개역된 성경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 창세기 1장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질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 『표준새번역성경』(1993)과 일본어 『新共同譯聖書』(1987)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 주목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8>이 증거자료가 되는데, <표8>은 <표6>에서 조사된 곳에 대한 현대어 구어체역 성경을 비교한 것이다.

<표8> 한국어 성경(1993년판)과 일본어 성경(1987년판)에서의 문의 수 대조

	창	출	레	민	신		마	막	눅	요	행
한국어	39	27	20	53	55		18	61	91	95	30
일본어	72	29	19	56	71		21	63	105	93	36

5) 성경 조사대상 각권 속의 접속사(수치는 각각의 출현회수)

- (출)그러나2, 그러므로,そして2,けれども,ここに,そこで2,しかし3,それで,
- (레)만일2,もし3,そうすれば,こうして2,
- (민)이같이,こうして,そして,しかし2,そうすれば,
- (신)그런즉,그러나,そこで,しかし2,そして,このように,こうして,
- (마)그런즉,だから,そして2,しかし,
- (막)그러나,그러므로,そこで2,そして5,すると5,それから4,さて,こうして2,ところが,しかし2,
- (눅)이러므로,이에,ところが2,そして6,さて2,すると4,そこで3,それから,それゆえに,それに,こうして,
- (요)そして6,ここに,しかし3,さて,そこで3,それでは,では2,
- (행)이러하므로,そして2,さて,それから2,そこで,

이것은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현대어에서는 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적어도 1950년대 전후라는 공시적 시점에서 한국어문과 일본어문의 상대적인 특징 하나는 분명히 지적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기도문 및 문체상의 유사성에 근거해 기도문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자료로서 삼은 1950년대의 성경에서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점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본다.

한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조비교에 아주 유효한 자료를 하나 찾아냈다는 것이다. 즉 기도문 비교에서 출발했지만, 두 언어의 성경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비교자료로 택했고, 비교연구자료로서 성경이 갖는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이들 성경의 개역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들 성경은 한일어비교연구에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얻은 중요한 소득이었다고 간주하고 싶다.

【參考文獻】

- 성경전서(1956譯), 대한성서공회
- 성경전서(표준새번역, 1993 譯), 대한성서공회
- 聖書(1955譯), 日本聖書協會
- 聖書(1987譯), 日本聖書協會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탐출판, p.152 ~154
- _____(1989), 『國語形態論研究』, 서울대학교출판, p.404 ~439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 집문당, p.60~62
-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연구』, 탐출판, p.72
- 나채운(1988), 『주기도·사도신경·축도』,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 p.135, p.214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출판, p.1205 ~1214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p.8~9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p.131 ~134
- 이희승·안병희(1989), 『고친관 한국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p.184~ 186

- 相原林司(1984), 『文章表現の基礎的研究』, 明治書院, p.275 ~283.
- 國語學會編(1995), 『國語學の五十年』, 武藏野書院, p.343 ~350.
- 鈴木一彦 編(1985), 『研究資料日本文法』第7卷, 明治書院, p.175~181
- 中村暎枝(1968), 「現代朝鮮語の辭典見出語における語彙の分布狀況」 『朝鮮學報』49輯、朝鮮學會, p.17 ~ 19
- 野田尚史(2002), 『複文と談話』, 岩波出版, p.147~162.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208
- 森田良行(1998), 『日本人の發想、日本語の表現』, 中公新書, p.174~181

要 旨

本稿では韓国語の祈禱文と日本語の祈禱文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文章単位においての兩言語の相対的な特徴を究明している。本稿の比較対象祈禱文は現在、韓國の教會と日本の教會で共に詠まれている‘主の祈り文’と‘使徒信條’のことである。これらの資料価値は第3の言語からの翻譯文であることと文章体という文体としての共通点を共有していることである。研究動機はそれぞれの祈禱文の比較から注目に値する共通の違いが見つけれられたからである。すなわち、日本語の方が韓国語に比べ祈禱文を成している文の数が遙かに多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だから、本稿の目的はその原因を明確にすると同時に、究明された原因が一般性を持つかを確かめることであった。そのため、本稿では二つの分析作業を実施した。一つは語彙量の比較であり、もう一つは文単位ごとの對照分析である。その結果、文章の構成時、文の数から見られる差異は兩言語の接續語尾の發達程度に大きな差があるためだ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すなわち、多様な韓国語の接續語尾が日本語では連用形や「て」の二つだけに収ま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本稿ではこの分析結果に對する檢証のために、祈禱文と文体の類似した兩言語の聖書比較を行った上、さらにこの事實が兩言語の接續詞の發達に影響を及ぼしたことも確認した。最後に、本稿では言語の流動性を前提した上で、文体の異なる現代語でのことを窺うため、兩言語の口語体の聖書に對する比較作業を実施した。その結果、1950年代の文章体の聖書と現代の口語体の聖書の間には相当の差異が現實的に存在することを確實にしておいた。従って、本研究の比較結果は1950年代の韓日兩言語の相対的な特徴として受け止められ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主の祈り・使徒信條・文章の單位・文の数・語彙兩の比較・接續の形・
接續詞・品詞の比較

투 고 : 2004. 2. 28
1차 심사 : 2004. 3. 13
2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629-7340
E-mail : ajw7340@hanmail.net

K C I

KCS I